

“잇고 있는 역사 되새길 마지막 기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25일 예망한 이치노헤 쇼고 스님에게 “용기있는 출판에 감사하다”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치노헤 스님이 4월 21일 남산 약초관음사였던 웨딩홀에 남아있는 석등을 조사하고 있다.

4월 21일 남산예술원 웨딩홀 입구. 일본 조동종 아오모리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과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자리했다. 한일 양국의 두 스님이 웨딩홀을 찾은 이유는 이곳이 일제 강점기 당시 남산 약초관음사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두 스님의 답사는 사이트 마코토 총독이 세계 최대 관음성지로 발원해 건립된 남산 약초관음사의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부지 일대를 둘러보니 당시 사찰의 석등이 웨딩홀의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찰의 기단 석재 일부도 확인됐다.

유구들을 찬찬히 둘러본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에도 일제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가 별로 없고, 불교사는 더욱 전무하다”며 “이 시대가 제대로 연구돼야 동아시아 전체를 제대로 조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 “이제 약초관음사 터는 50년만 지나면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지금 시대는 한일의 아픈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Last Chance)”라고 강조했다.

종걸 스님도 “아픈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세세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치노헤 스님의 방한 주요 목적은 자신의 저서 한국어판 《조선 침략 참회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4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님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불교가 유입됐던 배경에 대해 “백제에서 전해된 일본불교는 유입 당시부터 지배 계층을 위한 종교였던 탓에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식민시대

조동종이 조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일전쟁을 반대하다 처형된 우치야마 구도 스님이 있었다. 식민정책에 반대했던 일본 불교계 인사들을 발굴하는 것이 내게 남은 과제”라며 “책의 인세를 받지 않겠다. 좀 더 많은 한국인이 이 책을 읽고 일본 불교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강연도 이어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인공동대표 퇴후)는 4월 23일 조계사 대법전에서 이치노헤 스님과 그의 간담회를 열었으며, 4월 25일 《불교평론》 열린논단 강연에 참여했다.

23일 간담회에서 이치노헤 스님은 한국 불교시민사회단체에게 “인권, 평화, 환경

이치노헤 쇼고 스님 방한 주요 일정

- 4월 21일 남산 약초관음사 유구 답사
- 4월 23일 《조선 침략 참회기》 출판 기자회견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간담회
- 4월 24일 《조선 침략 참회기》 출판 기념회
- 4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예방 현대불교신문사 방문 불교평론 4월 열린 논단 강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불교가 제대로 갈 수 있다”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밟고 똑바로 가라”고 당부했다.

열린논단에서는 “일본불교계가 한국에서 행한 침략 옹호 행위를 참회하는 등 양심선언이 이어져야 한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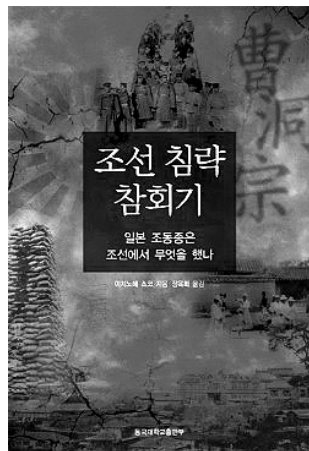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방문도 이뤄졌다. 4월 25일 이치노헤 스님이 예방한 자리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일 역사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조선 침략 참회기》라는 책을 낸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치하하기도 했다.

한편, 이치노헤 스님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신종일·노덕현·정혜숙 기자

일본불교, 과오의 기록을 담다

이치노헤 쇼고 스님, 《조선 침략 참회기》 한국어판 출판

‘이 독경은 메이지의 원훈 이토 공(이토 히로부미)을 하얼빈 역에서 쓰러뜨린 자객 안중근의 아들 중생 군이 공이 서거한지 30년 세월이 지난 오늘, 기이하게 같은 달에 공 영전에 아버지의 죄를 눈물로 사죄하여 그 영혼을 위로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추선 공양을 올리고...《후략》’



이치노헤 쇼고 지음/장욱희 역/동국대출판부

이는 1939년 10월 15일 《경성일보》에 보도된 ‘이토 히로부미도 받아들었다 박문사 사죄의 범요’ 기사 중 일부다. 당시 신문에는 조동종 박문사 주지 우에도 순애가 안중근의 위패를 안중생에게 건네는 사진도 실렸다. 일본 불교 종단인 조동종이 나서서 안중근의 아들에게 이토 히로부미에게 참회시키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 불교 조동종이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에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조선 침략 참회기》가 발간됐다.

저자는 일본 조동종 아오모리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 원제는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다》로 지난해 발간돼 일본 전국도서관협회 우수 도서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방대한 조선 침략사를 저술할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이치노헤 스님의 원력이었다. 스님은 10년 간 일본, 한국을 오가며 사재를 털어가며 사료를 모았다. 오로지 제대로 된 불교사를 조명하고 싶어 이뤄진 대작 불사였다.

이치노헤 스님은 4월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일본에도 별로 없다”며 “제대로 된 불교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사료를 모아서 기록해야 했다”고 밝혔다.

당시 日조동종 승려들

전쟁 지원 첨병 역할

10년 간 자료 수집해

“역사 인식 바로 세우길”

이치노헤 스님은 책을 통해 한일 합방부터 일본의 패전까지 조동종이 당시 조선 반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철저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증하고 있다.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가 1895년 명상항후 시해에 깊이 관련된 사실부터 청일·러일전쟁 등에서 종단 승려들이 첨병 역할을 한 것, 한일합방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범요를 발행하고 전국에 포교소를 개설해 황국신민화에 앞장선 것들을 명백히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현 신라호텔 자리에 이토 히로부미를 현상하기 위한 박문사를 세우는 데 조동종 승려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 자리에서 안중생이 이토에게 사과를 하게 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담았으며, 군산의 수탈사와 함경북도 군사도시 나남의 패전 후 풍경까지 세세히 그려냈다. 또한 군산 동국사의 참사문비를 세우기까지 과정도 생생히 기록했다.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 자신의 책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다》의 한국어판을 출간했다.

이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이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 책을 통해 일본 불교가 한반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책의 마지막, 이치노헤 스님은 동아시아 근대 불교사는 현대에 이어지고 있고, 조동종의 포스트콜로니얼(후기식민사회)은 아직도 방황하는 중이라고 쓰고 있다. 한일 양국의 불교계가 근대를 바로 볼 때 아픔의 연쇄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치노헤 스님은 던지고 있다. 신종일 기자

‘올바른 역사’ 화두로 만난 韓日 스님

아름다운 인연-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



일제시대의 뒤를린 역사를 화두로 살아가고 있는 종걸 스님(사진오른쪽)과 이치노헤 스님(사진왼쪽).

한국 유일 일본식 사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고맙다. 잊혀져 가고 있던 동국사에 일제 침략을 참회하는 비를 세우고 이를 비판하는 책까지 출판한 한 일본 스님이.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미안하다. 일본의 과오를 참회하고 속죄하는 길이 사료를 통해 알리는 수 밖에 없어서.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은 국적과 언어만 다를 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이다. 두 스님의 만남은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이치노헤 스님의 요청을 받은 2011년 김희성 동국대 교수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종걸 스님은 첫 만남의 당부를 강령하고 통하는 것이 있었다고 술회했다. 개인부터 올바른 교류를 해야 한다는 가치관도 통했다.

“처음 만났는데 이치노헤 스님이 나를

‘전생의 부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운명적 만남이라는 의미지요. 일본 불교는 격식을 따져서 사업 진척이 잘 안되는데 이치노헤 스님은 빠르게 일을 처리해줍니다. 동국사 참사문비 건립도 이치노헤 스님의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사문비 건립을 먼저 요청한 것은 종걸 스님이다. 올바른 교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참회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치노헤 스님은 흔쾌히 수차례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과 함께 비를 세웠다.

동국사에 세운 참사문비 때문에 이치노헤 스님은 우익들의 공격에 노출되기도 했고, 자신의 종단 조동종은 저작권을 들어 비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은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종걸 스님이 저에게 자주 해주 말이 있습니다. ‘제 옆에 부처님이 계시니 아무 것

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불법을 따르면서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실제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 위안부 할머니와 결연해 후원하고 있으며, 수요집회도 참가해 일본 대사관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모두 부처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이치노헤 스님의 지론이다.

같은 길을 가는 두 스님이기에 비틀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해법도 비슷하다. 연구를 통한 올바른 역사 찾기와 아래로부터의 교류이다.

“과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현재도 미

래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와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합니다. 저는 정치가 종교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과거를 고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이치노헤 스님)

“한일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교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교류가 올바로 이뤄진다면 정부 차원의 교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가져옵니다.(종걸 스님)”

글=신종일 기자·사진=박재관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누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그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해원정사 추모원 (납골당) 안내

천하의 명당

예로부터 집터를 잘 골라야 집안이 번성하고, 조상의 묘터를 잘 골라야 후손까지 번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원정사 추모원은 일주문성 삼봉산을 마주한 자궁혈에 위치하여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명당 중의 명당으로, 자손들은 수명장수하고, 하는 일에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리적 편의

해원정사 추모원은 광주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유족들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 좋고 쾌적하며 산세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후대의 번영을 기원함으로써, 가신 분과 보내시는 분 모두가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량의 복덕

매일 도량에 올려퍼지는 목탁과 염불소리는 돌아가신 영가의 천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에게도 큰 복덕이 되어 돌아오며, 후손들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해원정사 추모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385번지
전화 (062)234-4576, 222-7979 / 인터넷 주소 : www.해원정사.kr